



오리농장 최초 HACCP 인증 농장 '류도현 한방 황오리'

오리고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오리산업을 창조해 나간다

글·사진 : 이희영 기자(축산신문)



'creative with you -
당신과 함께 창조하다'
요즘 TV를 틀면 자주
나오는 모 증권사의 광
고 카피문구이다.

오리업계에도 이 같이

오리시장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오리고기 소비의 저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농장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
다. 충남 천안시 소재 '류도현 한방 황오리' 가 바로 그
곳이다.

류도현 한방 황오리는 오리농장 최초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획득하면서 오리업계의 새로운 발자국을 새겼
으며 특히 최근에는 오리농장 최초로 HACCP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생산적인 측면에서 오리업계를 선도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리고기 소비 시장에서도 획기적
인 발상의 전환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매월 2차례씩 방영되고 있는 TV홈쇼핑에서는
연일 매진 행진을 기록하며 TV홈쇼핑 최고 히트상품
인 안동간고등어의 매출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



① 농장전경 ② 축사내부 ③ 농장입구 소독기 ④ 농장안내문 ⑤ 치량소독기 ⑥ 부화장 ⑦ 류도현 대표

려졌다.

더욱이 TV홈쇼핑의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오리 고기의 소비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며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류도현 대표가 오리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5년 오리 2마리로 성남오리 농장을 설립하면서 부터다. 이 때부터 류 대표는 황토법제 사육법과 유홍 법제 사육법을 개발했으며 1997년에는 한방 황오리 제품을 개발하는 등 신기술 개발에 적극 나섰다.

1999년도부터는 무항생제 사육을 시작했으며 2003년에는 육가공업, 2006년에는 부화업에 진출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6년도에는 오리의 품질과 안전성에 자신감을 바탕으로 상호를 '류도현 오리'로 변경 실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8 가공장 9 각종특수사료 첨가제 10 한방사료 배합기 11 제품사진

8 오리업계 최초 홈쇼핑을 통해 판매 개시

더욱이 류도현 한방 황오리가 오리업계의 새로운 소비시장인 TV홈쇼핑을 개척했다.

이는 한국벤처농업대학과 CJ홈쇼핑이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농촌사랑자매결연교류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1촌1명품' 제품으로 선정되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류도현 한방 황오리'는 지금도 벤처농업대학의 성공 사례로 손 꼽히고 있고 TV홈쇼핑에서는 최단기간 졸업한 품목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곧바로 일반제품으로 방송을 시작해 지금도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송되어 연일 매진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홈쇼핑에서 류도현 한방 황오리가 큰 인기를 끌수 있었던 요인은 최고의 제품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꼽히고 있다. 또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선구자적 농장 운영은 소비들에게 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졌다는 점도 류도현 한방 황오리의 강점이다.

류도현 대표는 "지금도 CJ홈쇼핑 측에서는 물량을 늘리지는 요청이 꾸준하게 오지만 절대 생산능력 이상의 물량은 판매하고 있지 않다"며 "CJ홈쇼핑을 통해 판매량이 늘어 사육수수를 늘려야 하는 실정이지만 장사꾼이 되기 싫어 사육규모를 유지하면서 능력에

맞게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원칙은 홈쇼핑의 인기에 힘입어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납품 권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만 사육능력의 한계로 인해 물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류도현 대표 스스로 능력이 맞는 사육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류 대표는 "최고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는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결국 이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오리업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써 오리를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효과도 크다"고 말한다.

또 류도현 오리가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기존에 오리가 마리단위로 판매되던 것을 kg단위로 전환시켰다는 것은 오리유통에도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오리의 경우 유통구조상 통 마리단위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kg단위 거래는 대형마트에서만 일부 판매되고 있어 유통 선진화를 위해서는 kg단위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오리업계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TV홈쇼핑에 이어 류도현 오리가 오리업계의 새로운 길을 창조한 것은 무항생제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는 것이다.

㉔국내 최초 무항생제 및 HACCP 인증을 통해 안전축산물 생산 기틀 마련

류도현 오리는 2007년 7월에 오리농장 최초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획득했다.

하지만 류도현 오리는 무항생제 인증제도를 획득하기 훨씬 이전인 1999년도부터 이미 무항생제 사육을 시작해 한발 먼저 앞서가는 농가임을 입증했다. 류도현 오리가 이처럼 무항생제 사육이 가능한 것은 특허받은 유향사료를 비롯해 각종 한약재를 섞어 만든 특수 사료를 급여하기 때문이다. 류도현 오리농장에서 급여하고 있는 사료는 류도현 대표가 직접 개발한 한약재를 비롯해 유향, 마늘, 목초액, 천연비타민, 미네랄, 숯 등을 법제해 제조한 천연사료다. 이 같은 천연의 재료를 이용한 특수사료는 오리들은 건강하게 자라며 품질 높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있다.

류 대표는 “조금 비싸더라도 품질이 우수한 사료를 먹이는 것이 결국 농장 수익으로 되돌아 온다”며 “다른 농장들보다 비싼 사료를 쓰고 있지만 가능한 최고의 사료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오리가 잘 먹고 잘 커서 그만큼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결코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획득에 안주하지 않은 류도현 오리는 지난 7월에는 오리업계 최초 농장 HACCP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농장HACCP 인증 획득을 기반으로 류도현 오리는 보다 안전한 오리고기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㉕류도현 대표의 열정과 끈임없는 노력의 결과

류도현 한방 황오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류도현 대표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류도현 대표는 95년도 국내 굴지의 양돈전문기업에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리업에 뛰어들었다.

초기 부족한 자금으로 오리업을 시작했다는 류도현 대표는 현재 그 어떤 누구보다 오리에 대한 열정을 자랑하고 있다.

오리농장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오리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었지만 양돈업에 종사하면서 쌓아놓았던 농장 운영 노하우를 오리에 접목시켜 적응해 나갔다.

또 한창 농장을 키울 시기에는 하루에 2~3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정열을 불태웠다.

제품개발 당시에는 소비자가 아닌 가족들이 먹는 식품이란 생각으로 가능한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양념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훈제 제품을 만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화학조미료를 첨가하거나 소금을 첨가해 만든 제품에 비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류도현 대표는 정성을 다하고 진심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선다면 언젠가는 소비자들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류 대표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장 건강한 오리를 키우는데 열정을 다하고 있다.

